

산업으로서의 관광 속 관광기생의 존재*

—1970, 80년대 한국의 섹스관광(‘기생관광’) 산업

권창규**

1. 머리말: ‘왜공주’라는 관광기생의 존재
2. 미국 군인에서 일본인 남성 관광객으로: 성매매제도의 연속선
3. ‘무공해산업’으로서의 관광업과 ‘화대’ 사슬
4. 맺음말: 일본인 관광객 대 관광기생의 ‘교환계약’

국문요약

1970, 80년대 한국은 아시아의 손꼽히는 섹스 관광국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기생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기생관광 산업이 지닌 정치경제적인 무게는 컸지만 음지의 역사나 경제발전기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기생관광은 한국의 성매매제도의 연속선에서 파악해야 하며, 1970년대 들면서 성매매가 전세계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했던 추세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일본군,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상대로 했던 성매매가 국가 경제의 관광 산업으로 추진되었던 역사가 있었고, 전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섹스관광을 산업화했던 동시대의 현실이 있었다. 기생관광의 식민지성은 민족(일본 대 한국)이나 성(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

* 이 글은 대중서사학회 2015년 봄 학술대회, <금지된 일본, 한일수교 50년의 문화 혼종>(한양대학교, 2015.5.9)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글이다. 토론자, 질의자 선생님들께 두루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강사

도로 파악해서는 부족하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계약 관계(즉 일본인 남성 관광객 대 한국인 관광기생)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인간 상품으로 치부되었던 관광기생의 존재를 묻고 인권을 질문하고자 했다.

(주제어: 관광기생, 기생관광, 섹스관광산업, 개발자본주의, 자본주의 기부장제, 인간 상품)

1. 머리말: '왜공주'라는 관광기생의 존재

관광기생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관광과 기생의 기묘한 결합은 근대의 관광산업은 무엇이었으며 왜 기생이었나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1970년대 중반의 유행어 중에는 '현지처', '기생파티'와 함께 관광기생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그 중 대다수를 이뤘던 일본인 남성)을 상대하던 이들은 왜공주로도 불렸는데 왜공주는 미군을 상대하던 여성을 일컬었던 '양공주'의 패러디였다. 서울의 남산에서 사람을 붙들면 대체로 김씨, 이씨라고 했는데 '왜공주'로 바뀌었던 세태 풍자도 나왔다. 관광기생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 결과인 4만부터 20만 규모에 이르렀는데¹⁾ '20만 사창' 중에 관광기생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생관광은 성판매여성을 기생으로 상품화해서 내놓은 한국의 섹스 관광 상품이고 1970, 80년대를 풍미했다. 기생관광은 1990년대 초 문민 정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²⁾ 1980년대 중후반 서울에서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전국 4개 지역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3, 21쪽. 1960년대에 들면 '20만 사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자료에서 쓴 '20만 사창'이라는 말은 일본 주간지 아사히 보도자료(1973.10.25)를 인용한 것이다.

2) 박정미는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성매매관광정책과 호기롭게 결별을 선언할 수 있

열렸던 국제 스포츠 행사(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는 기생관광의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기생관광을 말할 때 1970, 80년대에 주목할 수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해외 여행사에서 기생관광을 알선한 혐의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는 놀라운데 1990년대까지 기생관광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1990년대 들어서야 기생관광 알선이 공식적인 ‘혐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을 따져보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이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의 성매매대국이자 여성 ‘수입국’으로 올라섰으며, 2010년에 유흥산업의 규모는 영화산업의 5배 규모로 추산되기도 했다.³⁾

다만 격세지감인 것은 오늘날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섹스관광을 떠나서 한국인 남성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과 3, 40여 년 전에는 이곳이 손꼽히는 섹스관광지였다는 점이다. “특별히 발전도상국의 관광은 기생관광의 형태를 띤 양상이 많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경향신문』, 1982.11.11)는 보도에서 기생관광은 섹스관광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한국은 “기생의 서비스가 만점, 남성의 천국”으로 선전되었다. “한국의 밤을 장식하고 즐거우게 하려면 먼저 기생파티를 필두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의 여행사들은 “한국의 명물인 강장제 인삼을 먹고 기생파티를 즐기시지 않으시렵니까?”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선전했다.

었던 배경으로 1986-88년 ‘3저 호황’으로 외화 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에 의존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 여성 관광객 수의 증가, 국내 관광 수요의 증가와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로 인한 관광 산업 다변화 등을 꼽았다.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48집 1호, 2014, 259쪽.

3) 『영화산업×5 < 성매매산업』, 『한겨레21』 887호, 2011.11.28.

4) 국내 여행사가 발간한 한국 여행안내서와 일본 항공사에서 발간한 한국 여행 소책자에 실렸던 광고 문구들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10-17쪽.

실제 반응도 뜨거웠다. 한국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설문에 일본인 관광객 중 80%는 기생파티를 꼽았다. 이웃 나라 관광객만이 아니었다. 어느 미국 기자가 『시카고 트리뷴』에 실었던 한국 여행기에서는 “1인당 약 25달러의 호화롭고 추억에 남을 저녁 관광 활동은 그야말로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은 기생집(‘kisaeng(or geisha) house’) 방문이다.”라고 했다.⁵⁾ 뜨내기 관광객들만이 아니었다. 1970년대 미군 고위 관리나 회고담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술과 여자, 음식과 성적 서비스가 제공되던 기생파티이다. 특히 1970년대 초에는 미군 관리와 기자를 상대로 매일 밤 기생파티가 열렸다고 한다.⁶⁾



『아시아매거진』에 게재됐다는 기생파티를 즐기는 존 게일의 사진.
『미풍 한국 흐리는 외빈 접대』, 『동아일보』 1971.11.25.

5) 일본인 관광객의 설문은 교통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선호도 조사(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기생관광』, 8쪽), 미국인 기자의 여행기는 『Chicago Tribune』(1974.3.3)에 실린 ‘korea’라는 제목의 기사(국제관광공사, 『외국 기자가 본 한국 관광』, 1975, 219쪽) 참고.

6) 캐서린 H.S. 문, 『동맹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180쪽.

기생관광은 시대를 풍미했지만 학적인 대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기생관광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근래 역사학, 사회학 분과에서 제출되기 시작했다.⁷⁾ 그러나 단독 연구는 드물었지만 정치사회사나 성매매, 여성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그 실태 보고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83)의 선구적인 보고를 비롯해서 윤일웅(1987), 등에편집부(1989), 박종성(1994), 변화순·황정임(1998), 민경자(1999), 강준만(2012)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⁸⁾

이외에도 미군 기지촌 성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기생은 기지촌 여성과 관련지어 함께 언급되어 왔다. 외국인을 상대한 이들 여성을 둘러싼 제도나 담론의 양상이 비슷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가 이들 여성에게 등록증을 발급,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교양교육 형태로 정신교육을 시킨 형태는 놀랄 정도로 흡사하다. 당시 자료에서는 ‘신판 정신대 교육’ 같았다는 증언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역사나 무게를 감안한다면 기생관광은 더욱 조명 받아야 한다. 식민지시기 제도화된 성매매로서의 ‘공창제’나 1960년대 제도화된 기지촌 성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데 비해 기생관광

7) 박정미, 『발전과 섹스』. 박정미,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 ‘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 정치, 1973~1988년』, 『사회와 역사』 101권, 2014, 405-438쪽. 이준식, 『박정희 정권과 국책으로서의 성의 도구화- 1970년대 기생관광의 식민지적 기원』,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배성인 외 공저, 『유신을 말하다』, 나뭇잎스, 2013.

8) 윤일웅, 『매춘: 전국 사창가와 창녀 실태』, 동광출판사, 1987. 등에 편집부 편,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 등에, 1989.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민경자, 『한국매춘여성운동사- 성사고팔기의 정치사, 1970~1998』, 한국여성전화연합회 엮음,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239~299쪽.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강준만,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인물과 사상사, 2012.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나온 연구(윤일웅, 등에편집부, 박종성)는 전국의 매춘 현황과 역사를 다루는 데 섹스관광을 논의했고 강준만(2012)은 이를 보강했다. 민경자(1999)의 경우는 여성운동의 시각에서 성매매반대운동에 초점을 맞춘 경우다.

은 그렇지 못하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겠으나 그 명명도 한 몫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생관광이라는 희화화된 명명이 학계에도 그대로 통용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기의 해프닝 정도로 취급되고 음지의 역사로 치부되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의 음지와 양지가 지닌 각각의 무게가 있듯이 기생관광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1970년대 들면서 성매매가 세계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제발전은 성산업을 동반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정을 떠나 도시의 공적 영역에서 직업을 찾아 나서는데 이주 과정에서의 경제적 궁핍과 고용 기회의 부재(내지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와 주변화) 때문에 성 판매가 유일하게 경제적인 가능성으로 주어지거나 대단히 매력적인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출 생산 노동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벌게 하는 업종이 되는 것이다.⁹⁾

1970년대 한국의 수출 정책은 저임금 정책과 함께 저곡가 정책을 동반했고 농촌은 주변화되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의 하층민으로 합류했다. ‘도시-창녀’의 존재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주변화된 여성 계급을 형성했다. 공순이로 폄하되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명목상으로는 산업역군으로 인정되었던 데 비해 이들 여성의 경제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은 경제발전이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만한 말이었으며 술 따르고 몸 파는 일은 노동으로 여겨질 수 없었다.¹⁰⁾ 성판매여성을 일컬었던 용어를 보면 뚜렷하다. 창녀, 유녀, 갈보라는 말에 이어서 1960년대에 새롭게 규정된 ‘윤락(淪落) 여성’은 이들 존재를

9)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78쪽.

10) 김원규, 「1970년대 소설의 하층 여성 정치학」, 연세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2009, 8쪽.

백안시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 양공주와 왜공주의 존재는 성판매여성이 '구제될 수 있었던 방식을 보여준다. 각각 미군과 외국인(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했던 이들 여성이 공주로 불렸던 데는 성 노동을 폄하하는 시선과 함께 그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물질적 부에 대한 질서와 동경이 담겨있다.¹¹⁾ 기지촌 여성과 관광기생의 경제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들은 산업발전의 역군이자 애국적인 노동자로 칭송되었다.

매춘녀가 '공주'로 구제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은 이들이 외화(딸라) 벌이에 기여한다는 점이었다. 이들이 지닌 대외적인 경제 가치 때문에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일반 도시-창녀는 이 범주에 끼지 못했다. 합법적인 생식(즉 부부 침실로 상징되는 결혼 제도)에서 벗어난 존재들(미혼모)도 비난을 받는 처지에 생식이 아닌 쾌락과 연계된 성의 추구는 죄악시 되었다. 이것이 일반 도시-창녀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이고 같은 이유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였던 창녀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했다.

기지촌 여성과 관광기생은 국익에 기여한 애국-노동자였지만 끝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어야 했던 존재들, 윤락-여성일수밖에 없었지만 애국-노동자로 칭송받았던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친 여성들이면서 '정상'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뭔가 이상이 있는 '비정상'들로 간주되었다.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포섭되는 양상은 성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유용하게¹²⁾ 정비되는 양상을 단

11) 양공주는 사람들이 지닌 미국 환상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몸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임옥희 옮김, 삼인, 2007, 44쪽.

1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2004(2판), 57, 70쪽.

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은 쾌락의 반대편에 서있지 않다. 오히려 쾌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통제하는 권력은 증대되어 왔다. 성 상품화가 국익으로 수렴된 형태로서의 애국-노동자와 윤락-여성은 어떻게 결합하고 경합하는가, 들여다볼만한 문제다. 이를 추후 과제로 두고 이 글에서는 관광기생을 만들어냈던 산업적 구조와 제도화 과정에 대해 먼저 일별하고자 한다.

기지촌 성산업과 기생관광업은 각각 1960년대와 1970~8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의 미군 영향력 축소로 집약될 수 있는 닉슨독트린(1969)이 발표되기 이전에 절정을 맞았던 1960년대에 양공주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면, 왜공주는 그 이후다.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면 관광과 기생이 연결되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동시기 1965년 한일협정(‘한일관계정상화’)부터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 80년대에 두드러졌던 관광기생의 존재는 1950년대 전쟁고아나 ‘미망인’들의 절체절명의 성판매를 넘어서, 1960년대를 지나서 성판매여성이 상품화,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주요 근무처(대도시와 관광지지의 호텔, 요정)나 학력 사항(원칙적으로는 고졸 이상)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다.

2. 미국 군인에서 일본인 남성 관광객으로

: 성매매제도의 연속선

국익 차원의 성 상품화를 둘러싼 담론 이외에도 관광기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2차 대전 후 아시아 국가들이 섹스관광을 정책화했던 흐름 속에 남한이 속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식민지시기 이후

성매매가 제도화되었던 역사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성매매가 제도화되었던 때는 식민지시기 공창제(1916)가 확립되면서부터였다.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 군인들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공창제는 태평양전쟁 당시 '위안부'라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에서 공창제가 형식적으로 폐기된 때는 1947년. 이 때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점령군이었던 미국 군은 기존의 공창 문화를 단절하고 기지촌 성매매라는 새로운 성매매 제도를 도입한 주역으로 한국 성매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¹³⁾ 성매매는 한국전쟁 때 군인과 유엔군을 대상으로 했고 휴전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왔다.

1961년 5·16 쿠데타 후 박정희 군사정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11)을 제정했지만 동시에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1962년 6월 전국에 104개 매매촌 '특별구역'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나 특수 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보류했다. 관광업 관련 법령을 보면 1961년 8월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관광 특구를 설치하고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판매를 인정, 조장한 것이었다.¹⁴⁾

처음에는 일본군,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상대로 했던 한국의 성매매는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군대 성매매로, 그 다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섹스관광으로 발전해왔다.¹⁵⁾ 따라서 1970, 80년대의 섹

13)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84쪽.

14) 왕성옥,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노동현장과 성산업 현장간의 배치과정에 대한 고찰: 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8, 40쪽. 특별구역 제정에 대해서는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73쪽.

스관광은 식민지시기부터 제도화되었던 성매매 제도의 연속선에서 파악해야 한다. 전후 폐허가 되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외화 획득을 위해 국가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했고 한국도 그 속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관광은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되며 “관광은 석유와 에너지 다음가는 경제개발 엔진”¹⁶⁾으로 꼽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군사적 배치를 꾀했고 종전 후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기지촌 성매매가 섹스 관광으로 바뀌었다.¹⁷⁾ 일본(이미 2차 대전 중 아시아 전역에 위안소를 건설한 바 있다)을 비롯해서 북서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중심으로 섹스관광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섹스관광 시장의 지형은 형성되었다.¹⁸⁾ 일본 남성들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섹스관광을 떠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대만, 이후에는 한국이 그 대상국이 되었다.

일본 남성들의 섹스 관광지가 한국으로 바뀐 데는 몇몇 배경이 있다. 일본이 해외여행을 자유화했던 때는 1964년이고 섹스관광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대상국은 대만이었다. 한국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72년을 기점으로 폭증

15)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69쪽.

16) 엘리자베스 베커, 『여행을 팝니다』, 유영훈 옮김, 명랑한지성, 2013, 29쪽.

17) 미군관 위안소(R&R, Rest&Recreation)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들이 겪었던 전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주일 씩 휴가를 떠나면서 아시아 전역에 확대되었는데 타이, 대만, 필리핀, 오키나와, 한국 등지가 그곳이다.(松井やより,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新華社, 1993, 82面) 하지만 종전 후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 위안소는 섹스관광지로 바뀜으로써 성매매는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1992년 미군이 철수했는데 기지 성매매에서 섹스관광으로 바뀌었다.

18)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79쪽.

했다.¹⁹⁾ 1972년 일본과 ‘중공’과의 국교가 회복되면서 대만과 일본과의 항공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대만으로 향했던 일본인 남성들은 한국으로 향했다.²⁰⁾ 당시부터 이 같은 상황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었다. “일·중공 국교 성립을 계기로 일본 관광객이 가져온 작금의 관광 붐”(『관광의 달을 맞아』, 『매일경제』, 1973.4.2.)은 화제를 모았다.

한국은 대만과 경쟁하면서 보다 값싼 여행국으로, 구체적으로는 ‘여자 값이 가장 싼 나라’이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값싼 상품을 내놓고 사실은 섹스파티로 메우려는 시장 경쟁 전략을 펴고 있었다. 따라서 리영희의 말대로 “10여 년을 지켜 내려오던 ‘4·19의 4월’이었던 달이 금년에는 갑자기 ‘관광의 4월’로 탈바꿈했다.”²¹⁾ 1973년의 일이었다. 유신(1972.10) 직후 박정희 정부는 1973년 3월을 관광의 달로 정했고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했다. 1974년에는 1회 세계 관광의 날을 지정했으며 관광업은 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에서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리영희의 지적을 더 따라가 보자. 호텔을 점령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인 남녀들이 연상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아리가도오 고자이마쓰(고맙습니다)’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상전을 맞이하는 줄개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굴한 웃음들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에게 하던 바로 그 태도들이 불현듯 생각났다.”²²⁾ 따라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일부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너무 많은 한국 여자들을 차

19)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인은 전체 외래 관광객의 40%를 차지했다. 뒤이어 해외 교포 15~20%, 일본인은 10% 내외였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인 관광객은 10% 내외로 감소했고 일본인 관광객은 63%로 증가했으며 1973년에는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일본인 관광객의 약 90%가 남성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7쪽.

20) 松井やより,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62面.

21) 리영희, 『외화와 일본인』(1973), 『전환 시대의 논리』, 한길사, 2006, 237쪽.

22) 리영희, 『외화와 일본인』, 234.쪽.

지해버린다고 불평”했다.²³⁾ 미군의 불평은 놀랍지만 이상하지 않다. 미군을 대하던 태도가 일본인을 향하게 되었으며 미군이 점령했던 각종 위안 시설은 더욱 대중화, 보급화된 형태로 일본인 남성들에게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광은 국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이 있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이나 관광산업이 아니라 한국 주둔 UN군과 외국인에 대한 휴식 장소와 위안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관광 주체도 외국인과 한국의 특수 권력층에 한정되었다.”²⁴⁾ 근대 관광사에서 1960, 70년대는 ‘국민대중관광의 형성기’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국민’과 ‘관광’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국민 대다수의 소비력은 낮았으며 관광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은 일부 부유층이나 외국인이 누리는 사치 행위로 인식되었고 관광산업은 외화 획득의 차원에서 중점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무공해산업’으로서의 관광업과 ‘화대’ 시슬

여행은 현대인의 즐거운 오락이다. 하지만 여행을 틀 지우는 여행 산업의 형태와 규모는 복잡하다. 여행 산업은 어떻게 정의되나? “관광은 한 나라를 ‘상품’으로 삼는 예외적 산업”이며 “정부는 관광의 핵심 영업력”이다.²⁵⁾ 흔히 박정희 정부의 다른 산업들처럼 관광 산업도 국가주도

23) 『일(日)관광객 기생에 군침』, 『동아일보』, 1973.5.29. 미국AP 통신이 전한 『타임』지 보도 내용이라고 한다.

24)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 2007, 112쪽.

25) 엘리자베스 베커, 『여행을 팝니다』, 48~49쪽. 이어지는 단락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도 참고했다.

형 자본 축적과 분배라는 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원체 관광은 국가 전체를 상품화하는 특수 산업의 형태이며 정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문화유적을 보존할지 파괴를 허가할지 결정할 수 있고, 공항을 지어서 시골 지역에 관광객 수만 명이 몰려들게 할 수도 있으며, 다국적 회사가 호텔을 짓게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느냐의 여부도 관광업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많은 나라들은 관광을 미래 산업의 하나로 꼽고 자국을 판촉하는데 열을 올린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문화 전반의 산업화와 한류화’²⁶⁾ 요약되는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아 최근에는 한류 확산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문화산업의 하나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럼 박정희 정권에서 관광산업은 어떤 의미였나?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중반에 여름 휴가제를 도입하고 국립·도립 공원과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국민 관광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관광정책의 핵심은 역시 외화 획득을 목표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었다.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수출입 정책의 만성적자가 해마다 늘어났던 상황에서 관광업은 블루오션으로 여겨졌다. 즉 외채의 압박을 줄이고 무역 적자의 폭을 줄일 자원을 국내에서 발견한 것이고 바로 기생관광 정책이었다.

이러하면 동시기 중동에 진출한 기술 건설 노동자나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군인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외화 획득을 위한 국외 시장에서의 인간 상품화를 보여준다면, 관광기생이나 기지촌 여성들은 국내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인간 상품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성 상품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6) 권창규, 『‘문화’에서 ‘콘텐츠’로: 한국 문화의 산업화와 한류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221~243쪽 참고.

물론 많은 여성, 남성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 하에서 수출 산업에 동원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채의 압박은 엄청났고 관광 산업은 보다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무공해산업'으로 여겨졌다. 1977년 100억 불 수출 탑이 세워졌지만 외화 가득들(실제 벌어들이는 외화)은 낮아서 100억 불을 수출하고 8억 불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높은 대외 의존도와 대일(對日) 무역 역조> 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대미 제품 수출= 대일 기계·부품 수입→ 대일 무역 역조>, 즉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는데, 대미 무역의 흑자가 대일 무역의 적자에 현격히 미치지 못해 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었다.²⁷⁾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글자 그대로 무공해산업이었던 것이 실제로 굴뚝을 세우지 않아도 외화를 쉬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3년 기생관광 보고서를 펴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공덕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백억 불을 수출하고 약 8억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던가. 그러나 관광 수입 7억 4천만 불을 벌기

27) 임휘철, 『청구권협정II- 협정 이후의 한일경제관계』,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1995, 207쪽. 한국 경제의 기반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 설비와 원자재,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순조로운 재생산이 불가능하며, 또한 거대한 상품 흡수자로서 미국 시장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은 미국의 역할을 대체, 보완하는 역할로 등장했다. 한국은 미군 점령에서 시작하여 원조, 공공 및 상업 차관의 대량 공여를 매개로 높은 대미의존도를 지녔는데 19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공여자라는 역할이 약화(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베트남 전쟁)되었다. 일본이 미국의 대체, 보완자로 등장하는 일은 물론 미·일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임휘철은 한국 경제가 국제시장에서 가질 수 있었던 '틈새우위'를 말하는데 이는 미국, 일본과의 경제 관계 속에서 국내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구축된 재래형 중화학 공업 부문의 대량생산이 갖는 효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같은 책, 201, 207~208쪽.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이 있다면 딸 팔아서 먹고 산다는 외국의 기분 나쁜 여론을 못 들은 척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시설도, 희생도 눈에 띄게 치르지 않았던 것이다.”²⁸⁾

더구나 수출 우선, 대기업 우선, 공업 우선, 선 성장 후 분배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정책 하에서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려웠다.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당장 수출과 성장이 가능한 대기업과 재벌 중심으로 경제 개발은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본의 회전력이 빠르고 보다 가시적으로 자본 축적이 보장되는 서비스업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졌다.²⁹⁾ 경제 성장과 더불어 1980년대에 이르면 3차 산업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1989년에는 향락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국민총생산(GNP)의 5% 이상으로 추산되기도 했다.³⁰⁾

그렇다면 관광산업의 진행 과정은 어땠나? 관광산업이 전개되었던 과정 역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을 대규모로 도입하여 대규모 국가 자본을 창출하고 단계적인 민영화 정책을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율성과 통제력을 확보했다. 관광업 분야도 마찬가지였다.³¹⁾

민간 자본의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던 관광 분야에 정부는 앞장서서 투자해서 관광 시설을 확충했다. 정부는 항공업과 호텔업에 집중적으로

28) 공덕귀, 『기생관광실태 조사보고』, 『새가정』 1984.1(통권 332호), 115쪽.
 29) 왕성옥,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노동현장과 성산업 현장간의 배치과정에 대한 고찰』, 8쪽(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재인용)
 30) 강준만,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126쪽.
 31)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114쪽.

지원했는데 1962년에는 대한항공공사(KAL)를 설립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진상사 조중훈 사장을 만나 민영화하는 담판을 지었다. 이외에도 외자를 유치해서 호텔 및 관광 시설을 증설하고 부족한 자금은 용자를 지원했고 외자도입법(1965)을 시행한 이후에는 외국 자본과의 합작투자도 대규모 호텔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차관과 직접투자의 형태로 외자를 적극 유치해서 사업의 외형적인 규모를 키울 수 있었고 이후에 정부 주도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사업가에 특혜를 주고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³²⁾

관광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 수익 문제에도 정부는 직접 개입했다. 정부의 주요 관광 행정 기구였던 국제관광협회(현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연초에 목표치를 발표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개 국제관광 알선업체(여행사)를 불러 업체 규모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치를 정해주었다.³³⁾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특혜를 받지 못했으며 업체들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비호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했다.

이것이 섹스관광 상품이라는 동일 시장, 동일 품목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한국의 여행업체들이 앞다투어 저가 관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혹은 내놓아야했던) 배경이다. 한국 여행사의 사정에 휩쓸렸던 일본 여행사들은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낸 여행사를 찍혔고 톡톡히 수익을 챙겼다. 저가 관광 상품을 충당하고자 등장

32) 정부는 워커히 운영권(1962), 특정 외래품 판매소(1962), 7개 지방 관광호텔(온양, 해운대, 불국사, 대구, 서귀포, 설악산, 무등산)(1963)을 인수해서 경영하다가 7개 호텔을 다시 매각, 민영화했다.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116~120쪽. 외자도입법은 이전의 외자도입촉진법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특혜의 폭을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같은 책, 115쪽.

33)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179쪽.(전경옥, 『한국여성문화사 2: 1945~1980년』, 숙명여대출판부, 2005, 179쪽 재인용)

해야 했던 것은 질 낮은 서비스, 담합에 의한 토산품 판매(내지는 강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트 투어'로 요약되었던 요정에서의 기생파티와 호텔에서의 섹스였다. 즉 관광 상품의 가격은 낮게 부르고 그 차액을 충당하고자 '화대'로 가외 값을 불렀던 것이다.

화대로 환산되고, 딸라벌이의 셈법으로 계산되었던 관광기생들. 그들은 그럼 돈은 많이 벌 수 있었나? 영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화대를 둘러싼 먹이사슬이 너무 복잡다단하다. 그들은 여행사, 호텔통과세, 밴드와 사비, 요정 종업원팀, 버스운전사, 요정지배인, 마담, 호텔 객실 담당, 왕복 교통비(콜택시)를 제한 금액을 손에 짚 수 있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일인당 화대 6만원 중 1만원을 받았고 1980년대 말에는 18만원(3만 엔) 중 2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증언이 나왔다.³⁴⁾

이들이 일당의 1/6, 1/9 정도를 손에 짚 수 있을 때, 여행사와 호텔부터 콜택시 운전사까지 파리처럼 꼬여들었던 작은 무리들 이외에도 너무 커져 보이지 않았던 정권의 큰 손들, 자본의 큰 손들이 있었다. 교통부(호텔 등록)와 재무부(환전상 등록), 상공부(특정 외래품 판매), 경찰을 비롯해서 각종 조합(숙박업, 요식업 등)과 관광협회에 이르기까지 큰 손들은 줄지어 손을 벌리고 있었다.

확실히 관광기생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몸과 성(섹슈얼리티)은 크게는 민족이나 국가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는 각자의 주머니와 공간, 자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섹스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제작된 '작은 섹스기계들'³⁵⁾이었으며 대규모로 생산된,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교체 가능한 개발자본주의의 부속품들이었다.

34) 松井やより,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78面. 화대 1만원과 이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먹이사슬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37쪽 참고.

35) '갈색 피부를 가진 작은 섹스 기계'라는 말은 필리핀 성판매여성들이 외국인에게 선전되는 말이다.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93쪽.

성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쉽게 성으로 환원되었으며 많은 여성 인구가 성판매여성화(매춘화)되었다. 스스로의 몸과 성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고 민족과 국가 혹은 각자의 '판주머니'에 속해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존재는 소외되어 있었다.

몸도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권을 물을 수 있을까. 많은 기지춘 여성들처럼 관광기생의 비극적인 소식은 간간이 신문 지면에 오르내렸다. “수출입국을 목표로 하고 수출에 혈안이 되었을 때 산업현장에서 공상(公傷)으로 죽은 노동자의 죽음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었듯이 딸라벌이를 위해서 관광입국을 세우다 희생된 기생아가씨의 억울한 죽음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³⁶⁾. 이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 헤아릴 수 없는 진실이겠다.

4. 맺음말: 일본인 관광객 대 관광기생의 '교환/계약'

서울, 부산의 대도시와 관광지가 중심이고, 주로 일본인 남성 단체관광객이 그 대상이 되며 대체로 2박 3일 간의 일정에 2회 나이트투어(밤의 관광)가 포함. 이는 기생관광의 내용이다. 나이트투어는 요정서 기생 파티 후 호텔로 직행하는 게 기본 일정인데 요정을 거치지 않고 호텔에 부속된 요정(‘한국관’)에서 일하는 ‘콜걸’과 파티와 섹스를 즐기는 신중 형태도 인기를 끌었다.

기생파티의 광경은 곳곳에 재현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983년에 펴낸 실태보고서에 상세하게 묘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려보자. 대개 요정(기생하우스)은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며 웅장한

36) 공덕귀, 『기생관광실태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새가정』 1983.12(통권 331호), 117쪽.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의 삼청각과 대원각은 800명(80명이 아님)이 한자리에서 기생파티를 벌일 수 있는 방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 호텔도 400명을 수용하는 연회관을 내걸고 흔히 선전했다. 일본인의 눈에 서울의 삼청각은 “궁성같이 서 있는 기생하우스” 같았다. 요정은 대개 양식과 한식이 혼재된 건물이거나 큼직한 한옥 여러 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았다. 일본인 남성과 관광기생의 일대일 짝짓기 이후에 커플끼리 착석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요리상을 ‘받는다.’

진수성찬의 정체는 상위에 오르는 안주의 종류 총 28가지. 불고기, 신선로, 갈비찜, 잡채, 편육, 김치, 떡부터 계란말이, 생선튀김, ‘야채사라다’ 등이 그것인데 보통 17가지 정도로 차려진다. 끝이어 물수건으로 남성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일일이 먹여주는 접객 관례가 시작된다. 술상 받기 관례의 첫 번째는 술을 들기 전에 정력제로 권하는 수삼과 메추리알. 이는 “한국의 명물인 강장제 인삼을 먹고 기생파티를 즐기시지 않으시렵니까?”라는 어느 여행사의 홍보 문구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후 남녀 혼성 국악단의 국악 공연(10여 분)과 가요 밴드의 공연이 이어진다. 한복 입은 국악단과 가요 밴드의 공연에서는 가야금과 아쟁, 대금, 장고, 살풀이춤(이상은 국악 공연)에서부터 아코디언, 기타, 드럼, 색소폰(이상은 가요 공연)까지 등장한다. 노래는 고즈넉한 연주부터 아리랑과 도라지 같은 민요, 일어판 동백아가씨, 최신 유행가요까지 뒤섞여 있다. 관광객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연주하는데 일제 때의 오래된 군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면 일본인들의 함창이 터져 나온다. 이후 술이 들어가고 흥이 나면 주지육림에 천태만상, 요지경 속이 펼쳐진다.

주지육림의 기생파티 후 관광객의 99%는 호텔로 직행한다(화대에 이미 호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1%는 다른 단골 기생이나 ‘현

지체를 찾아가는 축들이다. “이 앞에서의 복잡한 과정들, 즉 일본에서의 모집, 국내 관광회사에서의 인수, 요정으로의 알선, 기생파티 등이 바로 호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³⁷⁾ 초기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커플(관광기생-일본인 남성)이 함께 이동했으나 기생관광이 도마에 오르자 관광객의 버스를 요정의 자가용이나 ‘마이크로버스’, 택시를 타고 쫓아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일본인 관광 한국의 실상』, 『동아일보』 1973.7.13.
“기생파티서 순종의 미덕 발견”이라는 표제도 붙었다.

〈일본인 관광객-관광기생〉커플에서 따져볼 게 두엇 있다. 먼저 일본인 남성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이었다. 단체 관광은 개인, 가족, 신혼, 수학여행을 제외한 경우를 일컫는 말로 ‘일본인 사업가(캐슬린 배리)나 ‘동양의 벼락부자(리영희)가 주를 이루었다는 통념과 달리 서민층이 주

3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20쪽. 앞에 묘사된 기생파티 광경은 같은 책, 15~21쪽 참고. 서울의 요정은 삼청각, 대원각 이외에도 청운각, 선운각, 풍림, 명월관 등이 유명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요정은 버드나무집(柳屋), 한라정, 만월정, 송원 등이 있었다. 같은 책, 13~15쪽.

를 이루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처음 이용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할 정도로 시골 사람들, 도쿄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 호텔에 한 번도 숙박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옷차림새, 말씨, 손, 호텔에서 의 해프닝은 계급성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동일한 2박 3일의 일본 국내 여행보다 1/5 가격이라고 했고, '밤의 관광'은 일본의 유흥업소와 비교해도 값싼 가격에 '호유(豪遊)' 기분을 낼 수 있기에³⁸⁾ 일본인 남성들은 한국으로 몰려올 수 있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호사스러운 나들이에 걸맞은 구색은 '기생'이었다. 기생과 관광이 짝지어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는 한일협정 이후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던 때, 가까운 대만으로 일본인 남성들이 섹스관광을 떠나기 시작했던 시기와 동일하다. 남성-특권층 접대 문화 전통의 산물인 기생이 경제개발시대에 저가 보급형으로 탈바꿈한 형태가 관광기생이었다. 기생파티는 여전히 박정희 정권의 요정정치의 시대에 권력층이 즐겼던 향락 문화였음에도 저가 상품으로 일본의 서민층에게까지 보급될 수 있었다.

기생이 소환된 관광 상품에서 그 식민지성은 쉽게 포착된다. 특히 철도와 전기, 인근 숙박시설, 노동에 대립되는 여가 활동이라는 기표로 구성된 관광이 식민지시기에 탄생했다는 점, 동시기에 <식민지=여성> 즉 정복되어야 할 욕망의 은유로서의 <조선=기생> 기생이 관광 상품으로 등장했던 점, 기묘하게도 일본인 섹스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 기생이 재소환된 점에서 그 식민지적 기원은 농후하다.³⁹⁾ 식민지의 기생이

38)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9쪽 참고.

39) 참고로 이준식은 기생관광의 식민지성을 논하는 데 박정희 정권기 집권층의 식민지 체험과 정권의 요정정치를 관련지어 살핀 바 있다. 이준식, 『박정희 정권과 국책으로서의 성의 도구화』.

권번에 나가 요리점의 호출을 기다렸다가 인력거를 타고 갔다면, 이제 는 한복 차림으로 기생 파티 후에 판탈롱을 입고 승용차를 타고 호텔로 출동하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기생은 외국인을 겨냥해서 ‘한국적인’ 무엇을 표방한 산물이 었다. 한국적인 무엇의 실상은 기생파티 요리상에 김치와 ‘사라다’가 섞 여있고, 아리랑과 일본 유행가가 섞여들고, 관광기생이 한복에서 판탈롱 으(혹은 판탈롱에서 한복으로) 변신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적’이었다. 관광요정이 물의를 빚자 ‘한국 요리점/한국식 요리점’으로 명 명되기 시작했거나, 관광기생이 일했던 호텔에 부속된 관광요정이 ‘한국 관’으로 명명된 점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 기생하우스로서의 한국관이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은 한국관이라는 이름의 ‘관광나이트’의 유래다.

한국관과 한국 요리점에서 접대하는 여성은 기생으로 명명되었고 그 들은 ‘코리아의 유녀’였다.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생의 역사에 서 단 하나 남아있는 징표는 치마저고리였다. 당시 한국에서 한복 차림 의 여성들은 드물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은 기 생이라고 착각했다. 일본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은 대개 게이샤였기 때문이다. 일본인 남성들에게 〈한국 여성=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 으로 이국 여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식민의 욕망을 충족시켜줄만한 대상 으로 상품화되었다. 한국 여자들은 ‘순종적이다’, ‘후대한다’, ‘착하다’라 는 구매자들의 평가는 이와 맞물려 있다.



『경향신문』(1970.3.31) 5면과 6면 하단에 실린 관광호텔과 여행사 모음광고(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오른쪽은 모음광고 중 왼쪽 최상단의 만년장 광고를 확대한 것이다. 만년장(충남 유성, “최신 설비의 90 객실을 자랑하는 온천장, 한국 지방 호텔 초유의 기생하우스 한국관”)처럼 ‘기생하우스’와 ‘기생파티’를 앞세운 광고는 흔했다. 모음광고의 슬로건은 “고운 태도 바른 안내 다시 찾는 외국 손님, 관광으로 외화 획득 나라 살림 도우자.” 여기서 ‘고운 태도’는 정확히 여성 안내원과 접객원을 향한 수사다.

단, 이 식민화를 일본 남성에게 의해 한국 여성이 식민화되었다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독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는 일본 남성과 관광 기생이라는 짝패를 따져보면 분명해진다. 둘의 관계 맺기는 합리적이다. 수요자(일본인 관광객)와 공급자(관광기생)가 만나는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들 관계는 합리적인 거래 관계다. 한쪽은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쪽이고, 한쪽은 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쪽 사이에 맺어지는 교환이고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어디서나 물건을 사고 나서 아가씨는 얼마냐고 묻는다”⁴⁰⁾고 했다. 한국 여성이 한국의 특산품인 인삼과 똑같은 종목으

40) 공덕귀, 『기생관광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새가정』, 1983.12, 128쪽.

로 취급된 것이다. 놀랍지만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백화점이나 기념품 숍에서 실제로 여성을 알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의, 식, 주(酒)와 여자”⁴¹⁾를 한국의 토속미로 꼽았다는 국제관광공사의 수장의 발화 수준도 이와 똑같다.

반면 한국인에게 일본인은 ‘외화’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만 보면 저 자세 서비스를 일삼았고(이는 일본 잡지에서 꼬집은 바이기도 했다) 관광기생들도 이들 속에 있었다.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어제 저녁 쪽바리가 오지 않아서 공쳤다”⁴²⁾고 떠들망정 일본인 관광객은 하루하루를 구제해주던 물주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교환/계약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대등한 관계의 상거래가 아니다.’ 사는 쪽과 파는(팔리는) 쪽은 고정되어 있다. <남성 대 여성>, <일본인 대 한국인> 즉 <일본인 남성 대 한국인 여성>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 불변의 구도는 <일본인 남성 관광객 대 한국인 여성 관광기생>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만 생각할 때 타당하다. 이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여행사와 호텔, 요정, 항공사, 정부와 경찰을 비롯해서 요정 마담과 남여 혼성 국악밴드, 하다못해 콜택시 운전사까지 ‘화대’에 달라붙었던 크고 작은 매개자들을 생각한다면 성(남성 대 여성)이나 민족(일본인 대 한국인)에 따라 나뉘는 힘의 구도는 금방 깨어진다.

기생관광이라는 한국판 섹스관광은 성매매가 산업화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대등한 관계의 상거래가 아

41) 신임 국제관광공사 총재는 한국 토속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 식, 그리고 주(酒)와 여자’를 꼽았다. 가십 『새총재의 관광진흥 묘안』, 『매일경제』, 1971.7.24. 2면.

42) 유흥업 여성 종사자들이 다방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을 옮긴 것.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36쪽.

니다. 팔리는 측은 약자 입장인 빈곤층, 소수 민족, 난민, 저연령 여성이며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측은 가진 자들이다.” 국경을 넘는(= 넘어야 하는) 노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섹슈얼리티)은 매매라는 합리적인 거래 형식 하에 사실상 폭력적으로 착취되고 있는 것이 세계화의 현실이다.⁴³⁾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성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일부의 <부유한 북반구 여성- 가난한 남반구 소년> 의 성매매 관계에서는 판매 주체와 구매 주체의 성이 바뀌어 있지만 착취 관계 자체는 다르지 않다.

‘사실상의 착취 관계에서 따져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징후는 비인간화이다. 다시 리영희의 말을 빌려온다. “문제는 인간마저 상품화해 비인간화해버리는 그 사회의 잔인성”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야 마땅할 것 같다.” 그는 당시의 화법으로 그러니까 외화벌이에 환장한 경제를 꼬집어서 “사회와 국가와 국민에게도 외화보다 소중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⁴⁴⁾라고 표현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했지만 돈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된 자본주의 사회의 진행상이 필자에게는 먼저 보인다. 물론 필자의 이 인간주의적인 언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주권은 한 줌 정도다. 식민지 지배 체제와 분단이라는 억압적 국가 경험, 한국전쟁 속 민간인 대량 학살, 폭력적인 개발 독재와 북한과

43) 마츠이 야요리,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260~261쪽. 그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다.”라고 단언한다. 참고로 마츠이는 기생관광을 두고 경제적으로 일본이 발전하면서 금력으로 한국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일종의 성(性) 침략이며 일제의 종군 위안부의 역사(“위생적인 공동변소”로 운영된 ‘위안소’)를 연상하게 만든다고 했다. 松井やより,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63-64面.

44) 리영희, 『외화와 일본인』, 236~237쪽.

의 대결 구조라는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민주권은 한 줌 정도다.⁴⁵⁾ 인민주권의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얼마간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자본이 국가화되고 다시 국가가 자본화되는 정치경제적인 결탁 속에서 다시금 왜소해지고 있다.

한국 인권의 역사 속에서 포함과 배제,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으로 내몰렸던 최약체로서의 하층 여성들이 있다. 쿠데타 후 군사 정부가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자 재규정했던 ‘윤락녀들’. 하지만 이들 성 상품의 경제적 이익은 대단했고 술한 ‘호스티스물’이 생산, 소비되었다. 특히 이들의 상품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애국하는 노동자요, 민간 외교관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다. 바로 해외 자본에 의존적인 독재 정권이 호명했던 ‘공주’들이었다. 왜공주라는 관광기생의 존재는 〈자본주의 가부장제-개발독재-국가〉가 여성의 몸을 배치하고 구획했던 한 가지 양상을 폭로한다.

45) 김동춘의 말을 빌리면 ‘반의 반의 주권’. 사실상 ‘반의 반의 주권’ 상태로 출발한 한국인의 인민주권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나아졌지만 이후 개발독재의 유산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된 20세기 후반 이후에 다시 반의 반의 주권 상태로 후퇴했다. 김동춘, 『국가부재와 감정정치』,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노명우 외,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현실문화, 2015, 162~163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공덕귀, 『기생관광실태_조사보고서를_내면서』, 『새가정』 1983.12(통권 331호), 108-130쪽.
- 공덕귀, 『기생관광실태 조사보고』, 『새가정』 1984.1(통권 332호), 97-117쪽.
- 국제관광공사, 『외국 기자가 본 한국 관광』, 1975.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생관광: 전국 4개 지역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3.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2. 논문과 단행본

- 강준만,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인물과 사상사, 2012.
- 김동춘, 『국가부채와 감정정치』,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노명우 외,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현실문화, 2015.
- 김원규, 『1970년대 소설의 하층 여성 정치학』, 연세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2009.
- 등에 편집부 편,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 등에, 1989.
- 민경자, 『한국매춘여성운동사 성사고팔기의 정치사, 1970~1998』,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엮음,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239~299쪽.
-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48집 1호, 2014, 235~264쪽.
- _____,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 '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 정치, 1973~1988년』, 『사회와 역사』 101권, 2014, 405-438쪽.
-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리영희, 『외화와 일본인』(1973), 『전환 시대의 논리』, 한길사, 2006, 233~238쪽.
-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 왕성옥,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노동현장과 성산업 현장 간의 배치 과정에 대한 고찰:1960~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임옥희 옮김, 삼인, 2007.
- 윤일웅, 『매춘: 전국 사창가와 창녀 실태』, 동광출판사, 1987.
- 이능화,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1926),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 이준식, 『박정희 정권과 국책으로서의 성의 도구화- 1970년대 기생관광의 식민지적 기원』,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배성인 외 공저, 『유신을 말하다』, 나뭇잎, 2013.
-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한울, 2007.
- 입휘철, 『청구권협정II- 협정 이후의 한일경제관계』,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1995, 186~212쪽.
- 마츠이 야요리,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정유진·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들린아침, 2005.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2004(2판).
- 엘리자베스 베커, 『여행을 팝니다』, 유영훈 옮김, 명랑한지성, 2013.
- 캐서린 H.S. 문, 『동맹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 Kempadoo, Kamala(1998), "Introduction: Globalizing Sex Workers' Rights," in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eds., *Global Sex Workers: Rights, Resistance, and Redefinition*, Routledge.
- 松井やより, 『アジアの観光開発と日本』, 新幹社, 1993.

Abstract

Sex tour industry and 'Gisaeng' in Korea in 1970, 80's

Kwon, Chang-Gyu (Yonsei university)

Korea was famous for one of the sex tour countries of Asia in 1970, 80's. Although 'Gisaeng tour' was one of the basic industries of Korea at that time, it has not been an important academic matter among researchers. But Gisaeng tour was not a historical happening so it was the succession of the formal institution of prostitution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well as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in 1970's all over the world. Park Jeong-hee (朴正熙) government offered a premium to Gisaeng tour industry which made a satisfactory profit without environmental pollution. Gisaeng industry should be investigated from a point of view such as gender, sexuality, class, nation and capital. Ultimately, this study would ask the proletarian women's human rights during development capitalism in 1970, 80's.

(key words: Gisaeng tour, Sex tour industry, development capitalism, human right, prostitution of sexuality)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7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